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16호
서기 2001년 4월 25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깨달아 여여하면 늘 부처님 오신날

남편에 대한 존경심 사라져

문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대출을 받아가며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에 휘말려서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만 아픕니다. 그냥 내가 지은 업이고 살아야 될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 자신을 위로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마음이 말입니다. 요만한 거 하나 도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큰 것이 아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만한 걸 가지고 아주 크게 벌어져, 결국은 스스로 활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석구석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병고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 자식지간에 나는 문제도 보면,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도 있거니와, 부부지간에도 '아이고, 저이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해 주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 하고 탓을 하죠? 다 남남끼리 만나서 얼마나 살다가 그 모습을 벗어나고,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온통 나쁘니 좋으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두가 다 욕심입니다. 욕심,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을 더 벌려고 보증을 서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다가 본전도 못 추리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 뭐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스려서 말려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 만 사람이 와서 이 세상을 살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착이 겸손하고, 무심으로 겸손하고, 무심으로 행하고, 무심으로 말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마십시오. 뭐 가질 게 있다고 증오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애 쓰겠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더한 것을 요구할 때도, 언젠가는 이 몸이 사라질 건데, 내가 사랑한다면 다 가져라, 하고 뭐 버리죠. 뭐, 그것이 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다면 너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돈구름처럼 연기와 같이 사라질 이 몸을 가지고 착을 두고서 뭐 그렇게 적을 지겠습니까. 그저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해 보고 싶은 대로 해 보소 하고 다 주면 그 후에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세를 가진 사람 앞에는 아마도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겁니다. 우주간 법계랑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답답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다시 바뀌어서 즐겁게 사시고 지혜롭게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재생이 될 때, 재생

답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날까지 살아 왔던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일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초로 축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우리 마음과 말과 뜻을 한번 더 다져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법회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법회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이라고 해서 다음 생애 재생이 아니라 머리가, 마음이 트이면 재생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편안하게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잘 돌러나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공부하려면

문 제가 요즘 들어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질문을 용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은

문 사월 초파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2545년을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몸을 나누셔서 저희들에게 그토록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참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책에 쓰여진 형식적인 말과 이론의 인설로는 저의 답답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참 진리를 설하여 주십시오.

생명은 있었으니 초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고, 인등을 켜는 것이고, 또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그 만 명이 부처님이 다 되니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 우리가 같이 통하면서 같이 움직여지면서 같이 한 자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마음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의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라는

다. 즉 말하자면 자기 주인이 바로 그 컴퓨터 에너지며 불성이며 자불(自佛)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인이자 자기라고 했습니다. 이 몸통이라는 물질적인 자기와 정신적인 자기는 바로 주인공이라는 그 주장입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생명력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의 나는 과거의 나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생일도 이름도 따로 없고 내 마음 안에 항상 부처님 계시니 부처님 오신날은 영원한 오늘

내어 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분은 10년 가까이, 크고 작은 선원의 일을 묵묵히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남편과 아들을 교통사고로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선 선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유인 즉,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절과 스님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공부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어떤 마음으로 신행 생활을 해야 어떤 경계가 다가오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 마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을지 한편 두렵기도 하고, 의심이 갑니다. 스님,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침 바랍니다.

답 우리는 누구나 다 자동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도 과거지만, 과거에서부터 그 컴퓨터에 입력되어 현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관을 하면 앞서서 입력 됐던 게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된 게 나온다고 그랬습니

거기서 어떠한 게 나오더라도,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거기다가 되 입력시키고 거기다가 밀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너만이 낮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평화스럽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렇게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안되니깐 그렇게 모든 걸 걸고 관하는 거죠.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면 진짜로 문제는 달라지죠. 조그마한 일어든 큰 일어든 입력이 된 거를 그냥 두면 입력된 대로 그냥 현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진심으로 믿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믿었더라면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 주체를 무시하고는 만날 밖의 위대한 것을 쳐다보고 만날 밖으로 잘되게 해 달라는 거죠. 다 자기 마음이 달린 거라고 말해 줬는데 될 잘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가 항상 말을 하죠. 양무제가 그렇게 절을 짓고 웃을 보시하고 먹을 걸 보시하고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하고는 달마대사처럼 들었어



그림 · 최추현

요. '이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다 말입니다. 그런 데 달마 대사는 서슴지 않고 '당신이 아무 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공덕은 하나도 없다.' 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나무, 그 몸체와 가지와 잎새 모든 것이, 열매를 위해서라면 어디 다 물을 줘야 됩니까? 뿌리죠! 뿌리에다 물을 줘야 이파리도 싱싱하고 모든 게 다 싱싱해 열매도 굵고 크게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뿌리에다 주질 않고, 항상 남의 이름을 찾고 모습을 찾고 은봉 야 단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좀 없애고 그냥 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주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걸 발견을 못한다면 세군, 영계, 생사, 윤회, 업보에 끌리면서 살아나가야 하니깐 그 고달픈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종교라는 이름을 떠나서 자활(自活)하는 공부이고, 또한 어디에 세워 놔도 살아갈 수 있는 자력(自力)을 기르는 공부예요. 그렇게 모두들 자기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무한의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우리는 자기가 자기 못 믿어서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 없는 그런 궤도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이외의 밖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기를 바라다면 그것은 기복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내 안의 자불을 발현해서 제일 일등 가는 인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 안의 무한 에너지를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끔 내 마음 안에 공치기 할 공마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데 깨칠 수 있나

문 원저 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중생도 이 생애 본래면목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답 인간에게는 일체 만법을 객관으로 들어서 주관에서 소화하고 또 배출시키고 하는 능력이 주어졌고, 고등

동물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99%는 부처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고 모두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런 걸 그렇게 능히 소화시켜서 배출시킬 수 있건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믿습니까?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뱀이 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가없는 나를 도와줄까요? 누가 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까요? 누가 내 가난을 알아서 해결해 줄까요? 누가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에 어루만져 줄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누구를 믿느냐? 너 먼저 찾아라! 본래 있기에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항상 말씀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아이고, 이렇게 바쁘게 그거 찾을 사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주인공이 틀리고 있을 사이가 어디 있느냐?' 이려고들 있습니다. 그거는 본래 내 안의 다섯 가지의 오신님이 한데 합쳐져서, 내부와 외부의 모든 것을 일체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의 두뇌는 첨단을 달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나는 못나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래!' 이러겠지만,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는 얘깁니다. 왜? 이 두뇌의 기능은 천년을 걸어가든 하루를 걸어가든, 일초를 걸어가든 똑같은 얘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길에서 못한다, 이거는 짧아서 잘된다, 이거는 커서 들 수가 없다는 등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죠,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얘깁니다. 이 체가 없는 내 마음은 바로 그림자와 같고 빛과 같아서, 어디에 붙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붙어서 돌아가고, 이러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습니다. 자꾸,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차근차근히 쌓여있는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일컬어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컴퓨터에 쌓이고 쌓여서 자꾸 나와서 그런 거니 그런 의식과 내가 있다는 그 마음을 훌렁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에서 벗어나 내 본래면목을 발견해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 모두를 내려놓고,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도심도 마음 장난 아닌지

문 일체가 근본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도를 이루겠다는지, 병이 나아야 되겠다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내는 것이 욕심이기도 하고, 그 또한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장난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마음의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장난이 아니고 법이지. 그냥, 진짜로 알면, 어떠한 일이 닦했을 때 우리네는 뭐 주인공에다가 맡긴다. 어떤다 하지만, 도가 넘어가면 맡긴다 안 맡긴다 가 없이 그냥 보면 법이요, 들으면 법이요, 말하면 법이다 이거야. 그런데 모두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맡겨보라, 맡겨놓고 굴리라고 하는 거지.

20면으로 계속

가폭본 안목을 받든 고골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S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주**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